



희망과 생명을 이어가는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축적된 노하우와 새로운 시설 및 인력, 최신 장비통해 통합시스템 선보여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센터장 최병민)를 새롭게 개소해 지역 신생아 건강에 새 지평을 열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된 고려대 안산병원은 경기 남부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있어 전문성을 더한 전문적 치료 센터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은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진료실적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인력, 신생아 집중치료의 노하우, 시설 및

장비의 우수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졌으며, 이 분야에 있어 지역 최고임을 공인 받은 것이다. 본관 5층에 추가 확장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신생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인 신생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광역 의료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센터의 개소는 단순히 공간 확보를 넘어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최신 장비, 시설, 인력 등에서 업그레이드를 실시, 국내 정상급 시설을 갖췄다. 특히 타 병원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이송됐을 때 효율적인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른 진단, 치료가 가능하다.

최병민 센터장(소아청소년과)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신생아들을 위한 최상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력과 신생아 집중치료 전문 시스템을 도입, 신생아 응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높임으로서 더 안전한 신생아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안산, 시흥지역은 물론 경기 서남부의 신생아 집중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모들의 고령화, 환경적 변화 등으로 인해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집중 치료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지역 센터의 개소는 지역 내 신생아 집중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상의 진료를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Contents

2p Change 2012

통합창구 개설



2p Humanism

리비아 의료봉사



3p 고대병원의 명의

심장수술팀



4p Photo News

부기역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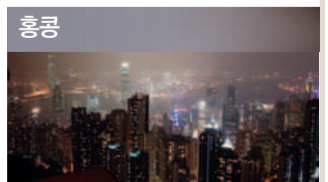
5p 음식정보

냉이



6p 여행정보

홍콩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 <http://m.kumc.or.kr>



리비아에서 펼친 고대의 인술

수술 및 외래진료 매일 진행, 1천여명에게 건강 돌려줘,
현지 의사 대상으로 강연과 세미나 진행해 큰 호응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린)은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전 이후 심각한 의료난에 허덕이고 있는 리비아에서 해외의료봉사(단장 최상용)활동을 펼쳤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리비아 해외 의료 봉사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김세훈 교수(신경외과), 최병민 교수(소아청소년과), 조원민 교수(흉부외과) 등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행정 지원 등 총 17명이 참가했으며, 리비아의 자위아 지역에 위치한 알 자위아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총 10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왔다.

한국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장비가 비교적 중증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현지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복강경 수술, 뇌, 허리, 선천성 기형수술 등 총 32여건의 크고 작은 수술을 시행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산부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진료뿐만 아니라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성원을 얻었으며, 이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알 자위아 국립병원으로부터 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

새롭게 단장한 통합검사 예약창구

이제는 사본발급까지 한번에 쉽게! 편리하게! 빠르게!



통합검사 예약창구가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 내원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중앙 로비 원내 약국 옆자리에 새롭게 마련한 통합검사 예약창구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검사 예약창구는 기존 로비 앞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예약 업무를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신속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통합검사 예약창구 뿐만 아니라 협력 병의원 지원 창구,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의료영상자료 창구 등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창구를 단일화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통합검사 예약창구 확장 리뉴얼은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기존 통합예약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고려대 안산병원이 전문적 진료와 최상의 진료 시스템과 더불어 선진적인 진단 및 예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통합검사 예약창구를 이용한 한 환자는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져 보일 뿐만 아니라 검사 예약이 이루어지니 복잡하지 않고 빨리 일이 끝나 좋은 것 같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이상우 병원장은 "통합검사 예약창구의 리뉴얼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확장, 각종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외래 리모델링, 본관 증축공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 지역 최대 병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협진의 결정체! 하이브리드 심장치료로 생후 9일 선천성 심장 기형 신생아 생명 구해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인터벤션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 근본적인 치료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신생아에게 하이브리드 심장치료를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안산병원은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입체적인 지원과 치료, 특히 인터벤션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환자의 경우 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부담 최소화와 치료효과 극대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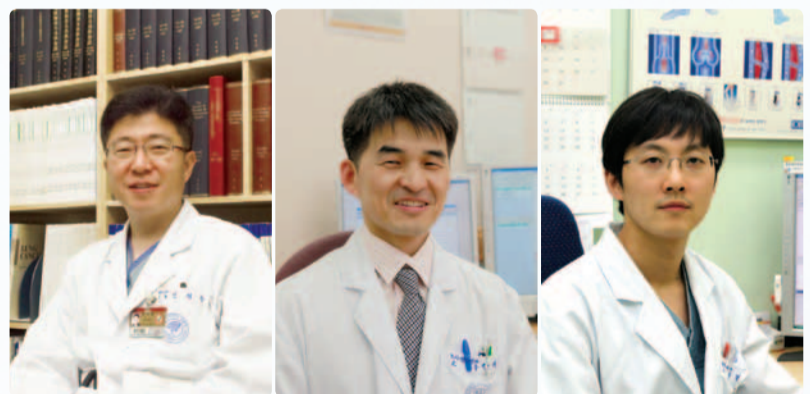
세상에 태어난지 1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왔다. 출산 전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상 특이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건강한 줄로만 알았는데,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의 진단결과 복잡심장기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가 대동맥궁에서 완전히 막힌 대동맥궁단절과 심한 대동맥 판막협착, 그리고 심실벽에 큰 구멍이 뚫린 심실중격결손이 있어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상태였다.

전문성 더한 하이브리드 심장치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응급약물치료를 받은 아이의 복잡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터벤션을 통한 고난이도의 신생아 동맥관 스텐트 삽입시술과 외과 수술을 통한 폐동맥 교약술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선천성 심장질환 전문의 장기영 교수와 흉부외과 심장질환 전문의 신재승 교수, 민병주 교수의 협진으로 환자 몸의 부담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심장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경제상황 어려운 환아에게 진료비 전액 지원

한편, 이번에 하이브리드 수술을 받은 아이의 부모는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한국에 건너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안산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빠른 치료가 가능했다. 아이는 3개월 뒤 2차 수술을 통해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예정이다. 🇰🇷



신재승 교수

-흉부외과-
선천성심장질환(수술)
대동맥질환,심부전

장기영 교수

-소아청소년과-
선천성심장질환
(중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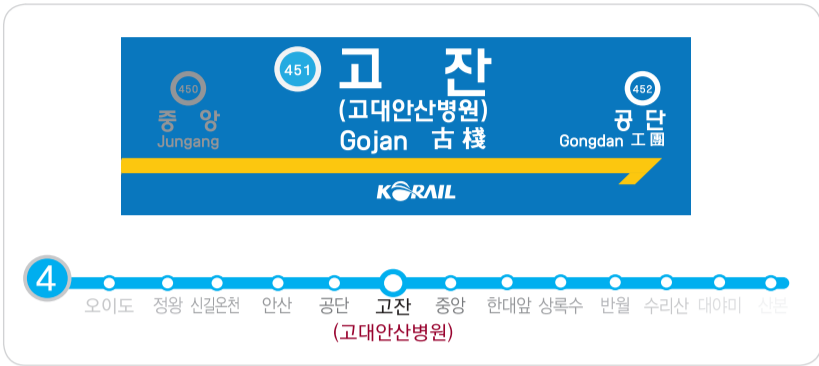
민병주 교수

-흉부외과-
선천성심장질환
(수술)

[Photo News]

4호선 고잔역(고대안산병원) 역명확정

고잔역이 고잔(고대안산병원)역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문화탐방]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

전민식 지음 · 장편소설 · 신국번형 · 296쪽 · 12,000원



2012년 제8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가 출간되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잘나가는 컨설턴트에서 직업을 잃고 추락한 주인공이 고급 애완견 ‘라마’를 산책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내용이다.

한때 잘나가는 컨설팅 회사의 전도유망한 일등 사원이었던 ‘임도량’. 그는 산업스파이였던 여자 친구에게 자료를 유출시킨 바람에 회사에서 잘린 후 개보다 못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일당 2만 5천 원짜리 불판 닦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누군가의 거짓 삶을 완성시켜 주는 역할 대행 일을 한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개—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라마’를 산책시키는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아르바이트비는 대기업 연봉과 맞먹고, 돌싱인 그의 여주인은 남몰래 그를 응시하고 있다. 만약 그녀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 작품은 현대인의 미덕이라 일컬어지는 우직함과 성실함만으로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헛된 욕망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욕망의 모래성 반대쪽 그늘에는 생의 폭력을 묵묵히 견뎌 내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1%가 아닌 99%에 대한 이야기”라며 “99% 사람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가, 돌파구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패자, 이른바 루저(loser)를 주인공으로 하여 삶과 일상의 지리멸렬함을 다룬 소설은 흔하다. 그 속에서 이 작품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각박한 세태 반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가슴 따뜻한 저항이 인간적 공감과 훈훈한 감동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글 | 원내기자 송보라(간호부)

극한의 현장을 찾아서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밤을 밝힌다! 야간응급간호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에요? 00님! 00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다. “응급상황이요? 워낙 많은데요.” 응급상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응급실간호사에게는 참 바보같은 질문이다. 이렇듯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의 삶의 기로를 경험하게 되는 곳 응급실 5년차 최이라 간호사의 야간 근무에 관한 이야기다.



응급실 야간근무의 시작은 모두들 단잠을 청하는 밤 10시이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진료에 사용 될 진료재료와 의약품의 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밤사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물품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한다.

야간의 환자분류소는 항상 만원이다. 각자 다양한 증상과 사연을 가진 환자를 증상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제 차레 아닌가요? 빨리 좀 봐주세요!” 모두가 자신이 가장 급하고 위중한 환자라 생각하기에 “정말 위급한 환자를 먼저 봐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5년차의 노련함이 필요한 순간 인듯 하다. 무엇보다도 응급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처치이다. “중중 의식이 없는 환자가 오는데, 대부분 뇌나 심혈관의 급성질환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3~40대 뇌경색 환자도 많구요” 이럴 때는

특히 시간이 관건이라 한다. 얼마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예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수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빨리 내원을 했다면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때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오늘은 작업 중 오른쪽 눈이 다쳐서 온 환자가 있다. 크레인에 달린 10kg추에 얼굴을 맞아서 왔는데, 눈 뿐만 아니라 뇌손상까지 진단되어 특별히 잘 지켜봐야 할 환자라 한다. “가까운 곳에 공업단지가 있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타지에서 아프면 더욱 서럽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더 쓰이죠” .

야간의 근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술에 취한 환자라 한다. “술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서 오거나,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싸우거나 난동부리는 환자도 종종 있어요.” 이럴 경우 환자를 진정 시키는게 우선이라고 한다. 간혹 이 과정에 협박이나 폭력의 중심에서 기도 한다. “환자분이 휘두르는 팔에 얻어 맞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그래도 환자인데 어쩔수 없죠 뭐”

“아무래도 3교대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거 싫어요.” 나름대로의 극복 비결은 “그냥 잘먹고 푹자는 거예요. 보약을 먹거나 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3교대를 하다보면 정해진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매일 무엇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응급실이라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최간호사는 말한다.

“야간근무와 긴장된 상황의 연속 등의 이유로 응급실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좋은 예후를 보면 보람도 있어요. 그러니 기피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후배 간호사들에게 전하고 싶네요” 마지막당부를 남긴채 최이라 간호사는 또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황**

글,사진 | 원내기자 고재철(산업의학과)

여성암 1위 갑상선암, 흥터없이 말끔하게!

진단, 수술, 방사선치료 까지 One-stop 치료와 철저한 관리로 완치 가능

고려대 안산병원 갑상선암 클리닉




여성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선진국형 질환이며 최근 국내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국가 암 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 환자 수는 최근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전체 여성 암환자 중 27%가 갑상선 암으로 나타나 부동의 여성암 발병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5배정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며, 중년의 여성에게 호발하지만 다른 암과는 다르게 30대 이전에도 발생률이 높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기술발전으로 인한 초음파 해상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갑상선종양 클리닉은 당일 진료부터 검사가 모두 가능한 갑상선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분비내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신속한 진단에서 치료, 수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

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는 “갑상선 암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지만, 이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며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단에 있어서도 초음파검사와 함께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동시에 바로 실시하고 미세한 갑상선암세포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갑상선암 수술은 직접 목의 피부를 일부 절개해 수술하는 방법과 겨드랑이와 유두쪽에 내시경을 넣어 갑상선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의 경우 목부위에 흉터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표준 치료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암세포가 전이될 확률이 높은 전경부 림프절의 완전절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목을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방법은 갑상선 및 림프절을 확실히 제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에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비인후과(두경부) 권순영 교수는 “1cm이하의 미세유두암은 전이될 가능성이 적고 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치료가 쉽다. 무조건 수술을 통해 갑상선을 제거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치료법에 따라 의료진과 함께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은 암이니만큼 섬세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조기진단 및 타 진료과의 유기적 협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도움말 |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 이비인후과 권순영 교수

갑상선암 자가진단 Tip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어 자가진단이 쉽지 않다. 다만, 혹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갑상선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1. 목 앞 부분에 혹이 만져진다.
2. 새로 생긴 혹이거나 혹이 자꾸 커진다.
3. 혹이 4cm 이상으로 크다.
4. 갑자기 목이 쑤다.
5. 주변 조직과 딱딱하게 유착되어 있다.
6. 임파선으로 의심되는 작은 혹들이 목에 만져진다.

냉이로 피곤함을 떨치세요!




봄철에는 우리 몸이 봄의 기운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입맛이 떨어지며, 눈의 피로와 두통까지 나타나는 춘곤증으로 인해 업무 및 학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이 때 계절 음식인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입맛을 살려준다. 봄나물 중 단연 으뜸인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냉이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2년생 초권식물이며 잎은 5~6월에 피며 열매는 짧은 쇠뿔 모양의 열매는 편평하고 첫여름에 성숙한다. 성분은 수분 81.5%, 단백질 7.3%, 지방 0.9%, 탄수화물 5.6%, 섬유 2.0%, 무기질 2.7%이며, 무기질에는 칼슘과 인,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다. 뿌리가 너무 굵고 질기지 않은 것,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인 것, 잎과 줄기

가 작은 것, 향이 진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꽃이 피게 되면 잎이 거세지므로 그 전에 뿌리째 캐서 먹는 것이 좋다.

냉이에는 이노산이 있으며 냉이에 든 콜린 성분은 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내장 운동을 보조해 간장 쇠약,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냉이는 소화가 용이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으며, 열량이 낮아 칼로리에 대한 걱정도 적다. 냉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날것으로 먹을 때 보다 가열하여 섭취하면 소화율을 높여 흡수율이 높아진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가열하면 냉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손실되고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살짝만 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식감이 좋지 않고 뿌리 부분의 고미가 나 먹을 수 없으므로 되도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은데, 이때 지나치게 데치면 질감이 물러져 좋지 않다. 그러나 생으로 냉이를 먹는 것도 독특한 별미이므로 연한 냉이를 골라 샐러드로 조리하여 먹어도 좋다. 냉이생채는 냉이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초고추장 양념에 무쳐 먹는 나물로서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에 먹으면 좋다. 

글,사진 | 원내기자 한혜영(간호부)

봄바람에 간질간질, 알레르기 비염!

환경오염 등으로 매년 증가, 우리나라 인구 20~25%가 환자




30대 직장인 A씨는 언제부터인가 매년 봄이면 지속적인 코감기에 시달려왔다. 환절기라서 자신이 감기에 쉽게 걸린다고 생각한 A씨는 매년 감기약만 복용했는데, 최근 두통과 목의 이물감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았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비염 환자들이 많다.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의 3가지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환자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25%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 내에 과민반응이 유발되어 나타나는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주어 코점막을 예민하게 한다. 주로 집먼지진드

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되며, 원인 물질 외에도 차가운 공기나 담배 연기, 오염된 공기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발작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또 눈이나 코, 입천장 등이 가렵거나 두통, 후각장애,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서는 기존의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고려해 알레르기 성향을 파악하고 단순 부비동 방사선 촬영, 비강 내시경 검사, 음향 비강 통기도 검사 등을 통해 비강 및 부비동 상태를 검사하며 세포검사와 피부반응검사, 항원혈액검사 등으로 원인물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생활환경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물질이 원인이 되므로 실내를 청결히 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활동으로 증상의 발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물치료로는 주로 항히스타민제와 국소용 스테로이드제가 쓰이며 약물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의 원인 항원에 대한 면역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강질환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

영화의 도시, 동양과 서양의 오묘한 조화 아시아의 별 홍콩



처음으로 영화와 추억이 있는 도시 홍콩을 다녀왔다. 비행기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며, 홍콩섬과 구룡반도 그리고 마카오까지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홍콩의 규모는 하나의 도시정도이기 때문에 명소만 찾아서 다닌다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홍콩의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느리고, 화폐는 홍콩달러를 사용하고 1달러에 150원 정도다.


홍콩의 상공업중심지 구룡반도

구룡반도는 홍콩의 상공업중심지다. 홍콩섬에서 구룡반도는 스타페리를 이용하여 뱃길로 다니는게 편하고, 그 외는 2층 버스와 지하철 MTR을 타고 이동하는게 좋다. 구룡반도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도교사원인 왕타이신 사원이 위치해 있고, 홍콩 문화의 중심지이며 허유산 망고주스와 비첸향 육포를 맛볼 수 있는 몽콕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홍콩섬은 리펄스베이 해변에서 바람을 쐬고, 스탠리마켓에서 가벼운 쇼핑과 함께 수직으로 올라가는 피크트램도 큰 볼거리다. 그리고 마담투소의 밀랍인형을 보고, 백만불짜리 야경이라고 불리는 스카이 테라스 관람도 홍콩에서 잊지말아야할 관광코스다.

영화의 도시 홍콩

그리고 영화의 도시답게 홍콩은 곳곳에서 영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때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드러내듯 거리 곳곳에서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 특히 침사추이에서 홍콩 스타들의 핸드프린트와 영화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는 스타의 거리를 돌아볼 때면 영화들이 스쳐지나가는 듯하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역만의 먹거리다. 홍콩은 육포, 에그타르트, 망고주스, 딤섬, 완탕 등 산해진미가 모인 곳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으니 금전적인 고려보다는 생각날 때 먹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보는 재미와 함께 미각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홍콩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글,사진 | 원대기자 박준우(시설팀)


2011년도 친절부서 및 친절교직원 선정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은 지난 2월 22일 오후 3시에 소강당에서 '2011년도 고객소리 친절부서 및 친절교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2011년도 한해동안의 고객소리 친절민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친절부서는 진료부문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병동간호부에는 81병동, 외래 및 특수간호부에는 내과, 행정 및 진료지원부문에 원무팀이 각각 수상했다. 친절교직원으로는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허태훈 전공의, 응급의학과 박성준 전공의, 101병동 남이지 간호사, 83병동 김계은 간호사, 신경외과 김혜원 간호사, 성형외과 박은주 업무원, 영양팀 강석희 업무원 등 9명이 선정됐다. 한편, 안산병원은 고객중심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절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VOC고객소리와 온라인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근거로 친절사원 및 친절부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펼쳐 원내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날 선정된 친절부서에는 상패와 상금이, 친절교직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박종태 교수, 산재예방달인 선정



산업의학센터 박종태 교수(51·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장·사진)가 고용노동부 1월 '산재예방 달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자 건강센터'와 고려대 의료원내 산업의학센터, 산업의학교실 개설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특히 안산지역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관리 지도를 했으며 외국인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노출 기준 제·개정(안) 연구 및 물질별 산업보건 편람 작성을 비롯해 화학물질관리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보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산재예방 달인'은 기업, 재해예방단체 등 각계의 안전보건관련업무 종사자들 중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며, '산재예방 달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추천 또는 국민의 직접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당뇨병 건강강좌 및 온전한 밥상캠페인



안산병원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당뇨병 건강강좌 및 온전한 밥상 캠페인'을 개최했다. 당뇨병의 치료 및 적극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약 2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당뇨병 관리와 식요법에 관한 강의에 이어 쿠킹쇼가 진행됐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CS강사 양성교육 성료



지난 2월 9일 오전 9시에는 소강당에서 'CS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원내 친절교육 및 조화를 활성화하고자 시행된 이날 교육에는 3기 친절리더 팀장 정춘희 수간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감성으로 행복하게 소통하기'를 주제로 Sentos 박보영 대표의 강연이 펼쳐졌다.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 및 우수부서 선정



지난 3월 16일(금) 오후 5시 세미나실에서 2012년 2월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와 2011년 하반기 의무기록정리 우수부서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전공의는 대장항문외과 조혜성 전공의이며, 2월 월별 재원미비 완성을 및 퇴원처리 전 퇴원요약지 입력율, 24시간 이내 입원기록 작성율과 경과기록 작성율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의무기록정리 우수부서에는 내과와 안과가 선정됐으며, 최우수부서에는 이비인후과가 선정됐다. 이비인후과는 하반기동안 퇴원 환자 수, 의무기록 정리율, 응급실기록 충실도, 주마감 정리율 등 다양한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의료정보관리위원회는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와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 교직원들이 함께해요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응급실 앞 이동 헌혈차량에서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수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행사를 통해 기부 받은 헌혈증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헌혈에 참가한 한 교직원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헌혈 행사를 통해 기회를 마련해 줘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산병원은 상,하반기 헌혈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산 시흥 지역 병원 세미나 개최



안산병원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부터 2층 대강당에서 '안산, 시흥 지역 병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 병원과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이상우 병원장, 박정호 부원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와 60여 지역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의 현황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의뢰절차, 의료분쟁의 효율적 관리 및 수사목적의 정보제공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으며, 병원 라운딩과 만찬으로 행사를 마쳤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고려대 안산병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병원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해 주목받았다. 만찬에서 이상우 병원장은 "오늘같은 자리를 통해 지역 병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하고 "병원인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004DAY 소감/사진 공모 수상



간호부(실장 김정숙)가 병원간호사회(회장 김명애)에서 주최한 '1004DAY 간호사 봉사활동 공모'에서 소감/사진 부문에 수상했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11년 10월 04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1004Day 간호사 봉사활동 소감 및 사진공모'에서 사진 226편(57개 병원)과 소감 119편(44개 병원)이 응모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소감부문에 '알록달록한 종이에 실린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수술실 이미희 간호사)'와 사진부문에 '사랑의 손길(내과외래 정희숙 수간호사)'이 각각 행복상과 기쁨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수상작품은 병원간호사회의 사진전과 책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안산병원 간호부는 안산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함께 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1004Day로 정하고 봉사활동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